

MOST 과학기술부	보도자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보도 시점	'05. 5. 6(금) 조간부터		
		자료배포일	'05. 5. 4	매 수	총 3 매
정책홍보 담당관실	담당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	과 장	정기준	02 - 2110 - 3740	
		사무관	홍성완	02 - 2110 - 3741 011 - 628 - 0466	

대규모 R&D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

- 금년 5월부터 시범사업 실시, 내년 본격도입 -

□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(본부장 任祥奎)는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대형 R&D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

○ 지금까지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건설공사 중심으로 대형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해온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R&D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임

※ 기획예산처는 '99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형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적·정책적 타당성을 사전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주관으로 실시해 옴('04년 현재까지 총 205건 조사)

□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거의 8조원에 이르는 국가 R&D예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정·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

-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R&D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·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
-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되면 신규로 추진되는 대형R&D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투자시기, 재원 조달방법, 국가R&D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관한 경제적·정책적·기술적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되어,
-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에 반영됨
- 과학기술혁신본부는 '06년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금년에는 우선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, 평가지표 등을 시험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하기로 함
- 시범사업은 R&D사업 조사·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(KISTEP)이 주관하여 시행하고,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들을 폭넓게 참여시킬 방침임.
- 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는 부처가 R&D분야 중기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출한 '06년도 신규사업(총 39개) 중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대형이고, 사업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을 3개 정도 선정할 계획임.
- 비용효과(B/C)분석, AHP(Analytic Hierarchy Process, 분석적 계층화기법) 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R&D사업에 적합한 최적의 분석기법을 도출할 계획임.

□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범위 및 선정요건, 선정방법·절차 등에 관한 「R&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안」을 9월중 마련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임.

○ 아울러, 금년 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제도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

□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R&D분야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R&D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착수하고,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